

2017.11.27.월

오경문헌연구

레위기(화목제)

레3:1-17/ 7:11-38

415282 홍효정

01

구조

CHAPTER

02

양식과 배경

CHAPTER

03

주석

CHAPTER

04

해설

CHAPTER

3장의 구조

- A. 1a절 도입
- B. 1b-5절 소에 대한 규정
- B. 6절 도입: 양과 염소
 - b 7-11절 양에 대한 규정
 - b 12-16절 염소에 대한 규정
- A. 17절 기름과 피 섭취 금지

A. 1a절 도입

B. 1b-5절 소에 대한 규정

1. 짐승의 조건(1b)

2. 의식 절차(2-5a)

① 평신도에 의한 안수와 도살(2a)

② 제사장에 의한 피의 취급(2b)

③ 평신도에 의한 기름 제거(3-4)

④ 제사장에 의한 기름 태우기(5a)

3. 분류에 대한 진술(5b)

B. 6절 도입: 양과 염소

b 7-11절 양에 대한 규정

2. 의식 절차(8-11a)

- ① 평신도에 의한 안수와 도살(8a)
- ② 제사장에 의한 피의 취급(8b)
- ③ 평신도에 의한 기름 제거(9-10)
- ④ 제사장에 의한 기름 태우기(11a)

3. 분류에 대한 진술(11b)

b 12-16절 염소에 대한 규정

1. 기본 사례(12)
2. 의식 절차(3-16a)
 - a. 평신도에 의한 안수와 도살(13a)
 - b. 제사장에 의한 피의 취급(13b)
 - c. 평신도에 의한 기름 제거(14-15)
 - d. 제사장에 의한 기름 태우기(16a)
3. 분류에 대한 진술(16b α)

A. 16b β -17절 기름과 피 섭취 금지

1. 기름에 대한 진술(16b β)
2. 금지 명령

7장의 구조

화목제에 대한 지침(7:11-21)

a) 도입문(7: 11)

b) 지침 자체 (7:12-21)

(1) 찬양(감사)의 제물과 그와 더불어 드리는 맥에 대한 규정(7:12-15)

(2) 서원이나 자원(낙헌)의 제물의 고기 섭취에 대한 규정 (7:16-18)

(3) 의식적 부정결과 관련해서 고기 섭취에 대한 법(7: 19-21)

A. 기름과 피의 섭취에 대한 첫 번째 연설(7 :22-27)

1. 도입 형식문(7 :22)

2. 연설 (7:23-27)

a) 연설 위탁(7:23a)

b) 법들(7: 23b-27)

1) 기름 섭취의 금지 , 명령과 법(7 :23b-25)

2) 피 섭취의 금지와 피 섭취에 대한 법 (7:26-27)

B. 화목제의 제사장의 몫에 대한 두 번째 연설(7: 28-34)

1. 도입 형식문(7 :28)

2. 연설 위탁(7: 29a)

3. 규정들(7:29b-34)

a) 여호와께 화목제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바쳐야 할 평신도의 책임(7 :29b-31a)

b) 화목제의 제사장 몫의 확인(7 :3 1b-34)

III. 요약 진술 (7:35-38)

A. 제사장 몫에 대한 첫 번째 요약 진술 (7:35-36)

B. 희생 규정들의 권위에 대한 두 번째 요약 진술 (7 :37-38)

양식과 배경

★ 3장에서의 화목제사의 여섯 가지 단계

1. 드리기(가져오기) (בְּקִרְיָה-히크리브: 1b, 6b, 7, 12b절)
2.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기 (חֲמוֹם-싸마크: 2a α , 8a α , 13a α 절)
3. 도살 (שֶׁחַט-샤하트: 2a β , 8a β , 13a β 절)
4. 피의 취급 (קִוָּיָה-자라크: 2b, 8b, 13b절)
5. 기름 제거 (הִסִּיר-헤씨르: 3-4, 9-10, 14-15절)
6. 기름 태우기 (הִקְטִיר-히크리르: 5b, 11b, 16b절)

평신도 1-3,5 제사장 4,6을 수행.

짐승 도살과 내장과 기름 부위의 바치기에 집중!

코흐(Koch)의 주장

바치는 자의 짐승 안수의 순서가 이 의식을 번제의 안수에 맞추려고 애쓴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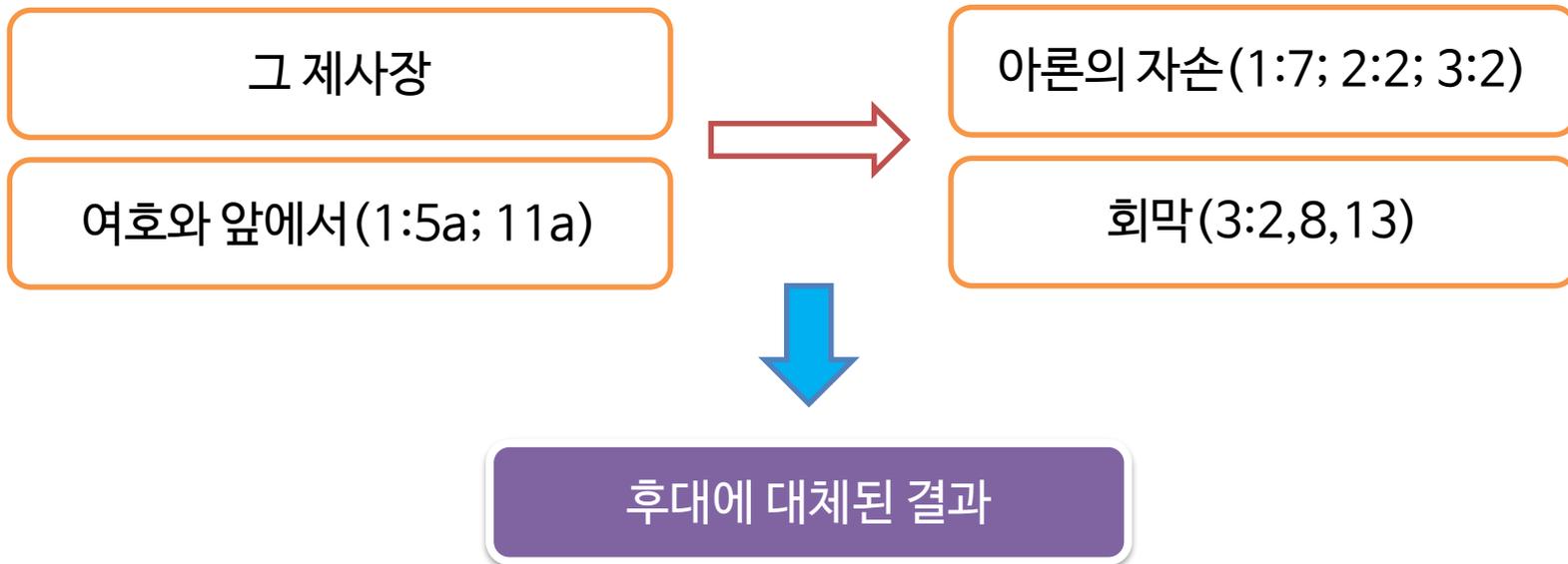
- 1) 본문은 안수를 할 때 1:4과 4:4, 15처럼 특정한 짐승 위가 아니라, 제사장 저자들이 선호한 단어인 봉헌물의 머리에 한다고 읽기 때문.
- 2) 전이의 행위로서의 이러한 몸짓이 화목제에서는 아무런 의의를 갖지 않기 때문.

But, 의례의 원래의 배경을 밝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

전이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음

3장의 편집 작업

1-2장과 똑같이 편집된 그 제사장과 1,2장과 다른 3장의 회막



각 의식의 말미에 나오는 이 제사에 대한 정의 진술들이 다소 다름.

5b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예물”

11b절,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로서의 음식(식물)”

“예물이”란 단어에 바로 뒤이어 여호와의 사용은 드물며

본문상의 오류임을 암시

소의 화목제에서 이 제물의 지정된 부분을 번제물 위에 다 태운다는 언급은 다른 의식들(양과 염소의 화목제)에는 없기 때문에 본문 속으로 들어온 여백 주해(marginal note)로 봄.

이러한 규정이 채택되었을 당시 바치는 짐승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화목제에 적용되었을 것이 분명함.

16b β 절, “모든 기름은 여호와께 속한다.”

번제단 위에 태워야 하는 부위들을 강조!

전혀 다른 곳에서 유래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최종 본문으로 유입된 **여백 주해**의 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음.

특별한 지방 부위가 기름 제거에 대한 묘사들에 포함되는지,
그것이 규정에서 제외되어 바치는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것인지 해결하기 위함.

엘리거(Elliger)의 주장

17절, “기름이나 피의 섭취를 범주적으로 금지하는 법령”

7:22-27과 동일한 출처자료.

총괄적 문체와 범주적 특징은 이 규정의 나머지 부분들과는 확연히 다른데, 법령이 본래 다른 정황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시사.

짐승의 태우지 않은 기름을 바치는 자에게 돌려주어 고기와 함께 먹게 하는 일부 성소들의 관행을 반대하기 위해 포함.

포로기 이후시대, 제의 관행들을 표준화하던 어떤 시기들,

히스기야(BC705)이나 요시야의 개혁 운동시기(BC622).

7장에서 화목제에 대한 지침 두 가지.

1) 기름이나 피의 섭취를 막는 두 개의 금지 조항과 동물 사체의 기름에 대한 하나의 명령, 그리고 끊어짐(제명)의 징벌에 대한 두 개의 법규

2) 화목제물의 제사장 몫에 관한 것  **평신도를 위한 지침!**

- 공인된 제의의 확립과 더불어 제물의 일부가 제사장들의 몫으로 할당됨.
-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는 평신도를 위한 지침 포함.
- 평신도는 희생 제물의 어떤 부분이 제사장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인식 필요!

**이러한 주제들을 가르치는 것은 평신도와 제사장 사이의 결속을 확립!!
평신도를 위한 기록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사실!**

평신도를 위한 지침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

1) 자료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것이 너무 간결하고 지나치게 개략적, 부족함을 알 수 있음

2) 제의법적 문체는 대부분이 제사장 교육 자료집에서 취해졌다는 것을 시사함.

어떤 편집자가 1-5장에 없는 여러 가지 희생들에 대한 특별한 지침과

규정들을 보존하려 했으며, 폭넓고 다양한 제사장적 전문 지식을 이용했다고 결론

주석

3:1~5
소에 대한 규정

01

3:6~11
양에 대한 규정

02

03

3:12~16
염소에 대한 규정

04

3:16b~1
피와 기름의 섭취 금지

제바흐 (זֶבַח)

- 대체로 희생에 적용되는 용어(바치는 자가 축일의 식사를 즐기는 것을 허용하는 희생)
- 죄 용서와 연관되며, 피의 세속적인 사용을 삼가지만 피를 취급하는 특정한 의례는 없음
- 희생제사뿐 아니라 특정한 제사들을 염두에 둔 일반적 표현(자주 사적인 희생제사)
- 공동식사와 결합되어 있음(창 31:54)
- 기본 목적이 제사와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고기를 얻는 데 있음을 암시(레 17:5)

쉐라밈(שֶׁלָמִים)

- 헬베이 쉐라밈(화목제물의 기름), 담 쉐라밈(화목제물의 피)
- 제의적 특징이 기름과 피에 있음을 시사(왕상 8:63-64; 왕하 16:13)
- 신27:7; 출32:6, 쉐라밈에서 공동식사가 베풀어짐
- 공식적인 화목제에 대한 가장 오래된 이름.

제바흐 쉐라밈이라는 완전한 용어는 희생 의식들이 법전으로 성문화될 때 두 용어가 결합되어 평신도를 위한 축일의 식사로 고안된 정확한 용어가 됨.

a. 화목제는 세 가지 유형(7:11-20)

‘찬양제’ (7:12-13)

- ✓ 감사제
- ✓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
- ✓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감사
- ✓ 표준은 전병이나 떡(빵)을 소제를 드리는 것
- ✓ 기름 섞은 누룩 없는 떡
- ✓ 기름 바른 누룩 없는 전병
- ✓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

‘서원제’

- ✓ 서원의 약속들에 응하여 드려짐
- ✓ 신실한 예배
- ✓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기쁨을 표현

‘자원제’

- ✓ 낙헌제
- ✓ 가족이나 혈족이 하나님 앞에서 축일을 기념
- ✓ 자발적
- ✓ 기쁨에 겨워 드리는 제사

b. 주요 목적

- 바치는 자와 그의 가족 혹은 소속 집단이 그들 몫으로 돌아온 고기를 절기 축제의 식사에서 먹기 위한 것.
- 식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의식적으로 정결해야 함(7:15-16)
- 축제의 식사는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연대감을 확인하는 언약 갱신의 표현.

c. 고기의 유효기간(7:15-18)

- 찬양제는 잡은 당일, 서원제,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모두 먹어야 함.

- 시간을 넘어서 남게 된 고기는 어떤 것이든

“부정한 힘을 가진, 혐오스러운, 오염된 것”으로 분류,

만일 누군가가 그런 고기를 먹는다면, 그 희생을 바친 사람의 희생의 혜택 상실함.

c. 고기에 대한 규범(7:19-20)

- 고기를 먹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먹기 전에 의식적으로 정결하다는 것이 분명해야 함.

부정한 상태로 고기를 먹으면 제의 법규를 심각하게 위반!

그 징벌을 대단히 엄격함! 여호와와의 의해 백성으로부터 제명(끊어짐)이 됨.

굿(Good)은 제사장 집단 내에서 이 어법이 사형을 의미한다고 주장.



후톤(R. Hutton)은 사람의 재산이나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을 잃는 것을 의미(시37:22)

- 여러 종류의 화목제들의 고기를 먹는 다양한 규범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고기의 섭취는 그 제사의 영적인 효력이 바치는 자를 위해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

★ 도입(3:1a)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히브리어 본문의 직역,

‘만일 그의 예물이 화목제 제물 (מִנְחָתוֹ נִבְרָא-מִזֵּימ 제바흐 쉘라밈)이면’

제사 이름으로 이해되지 않고 **인사 선물** 같은 것으로 이해.

CHAPTER 소에 대한 규정(1~5절)

★ 규정(1b-5)

1. 짐승의 조건(1b)

소를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찌니

여호와 앞 = 회막 문, 여호와 앞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관계를 나타냄.



고기의 대부분의 평신도의 소유, 짐승 자체는 거룩한 구역으로 반입X.

어떤 제물이든지 내성소(Holy place)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 성별.

잔존물을 제거할 때 제외하고 다시 밖으로 빼낼 수 없음.

2. 의식절차(2~5a)

2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① 평신도에 의한 안수와 도살(2a) - 짐승은 회막 입구에서 도살됨.

② 제사장에 의한 피의 취급(2b)

- ‘제단 사면에 뿌리다(:בִּגְדֵי הַזָּהָב וְהַחֹמֶת הַלְוִיִּים ... 알 함미즈베아흐 사비브)’는
피는 제물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을 향해’의 의미로 이해됨.

3a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찌니

חֲטָאתֹת-וְעִשְׂתֵּי חֲטָאתֹת 화제를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란 의미에서
선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3b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단 위에서 태워지는 부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 “기름(גֹּלֵחַ-헬레브)”은 여호와께 속함.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בְּגֵזֵי-אֶת-הַמִּזְבֵּחַ-וְעַל-הַחֵטֹאת-하헬레브 하메카씨 에트 하케레브)”,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 (:בְּגֵזֵי-עַל-הַקֶּרֶבֶת-וְעַל-הַחֵטֹאת-하케레브 알 아셀 하헬레브)”

- 모든 기름에 대한 총괄적 표현이고 내장을 싸고 있는 기름이 붙어있는 막을 지칭함.

4절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구약에서 콩팥은 자주 한 개인의 감정, 깊은 생각, 양심과 관련됨(시16:7; 렘11:20; 17:10)

히브리인들은 깊은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간과 결부시킴(애2:11).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들이 특별한 동물들의 내장, 특히 간에 징조가 되는

사건들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한다고 믿음. 다양한 시기에 제사장들은

신들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러한 동물들의 내장을 읽었음(겔12:21).

간엽(간꺼풀)은 특히 바른 해석을 위해 중대한데, 그런 점술(내장에서 신의 뜻을 보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엄격히 금지됨. (신18:9-13)

점술을 위해 간엽을 꺼내 옆에 두는 대신에 화목제물의 내장들은 여호와께 소중한 예물로 제단에서 태워짐.

이러한 희생 규범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점술 관행을 막는 방어벽을 세움.

5절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닷 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각하도록 명시된 화목 제물의 부위들은 이미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놓아야함.

이 어구는 하나님께서 바치는 자를 위해 그 희생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의미함.

6-8절은 소에 대한 규정과 같으므로 주석을 생략함.

9절,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과 붙은 모든 기름과

“기름진 꼬리”(חֵטְאֵי-אַיָּה)가 양과 관련하여 특정하게 언급되는데,

팔레스타인에서 기르는 넓은 꼬리를 가진 양의 특별한 특징을 내포하기 때문임.

양은 15파운드가 넘는 무게의 꼬리를 가짐. 이러한 꼬리 기름을 제단에 바쳐 먹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었음.

11절,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레헴(מִחֵם)”

떡을 의미하는 단어로 나오지만 일반 음식으로 자주 사용. 본래는 “고기”를 의미.

고대 근동의 만신전 신들이 음식이 필요하여 희생물들에 의존했는데 여호와는 그런 언급이 없음.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여호와 자신이 희생을 바치는 자 및 그의 혈족들과 함께 화목제로부터 만들어진 음식을 함께 나누신다는 것(공동식사)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을 것!!

화목제가 축제 음식을 위해 쓰도록 반드시 평신도에게 속한 유일한 희생 제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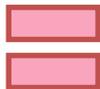
12~16절 염소!

염소만의 독자적인 규정이 주어지는데 기름진 꼬리를 가진 양과 구별되기 때문.

단지 암염소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가능한데, 염소에 대한 단어는 주로 암컷을 지칭하고 수컷과 암컷이라는 용어들이 이 문단에 없기 때문!

소, 양의 제의 절차

염소의 제의 절차



소의 떼어낼 기름목록

염소의 떼어낼 기름목록

염소에 대한 규정(12~16절)

16절, 17절의 도입을 용이하게 하고 피를 제물로 오해하지 못하게 함!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와
것이니라

기름 =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과 “피”의 섭취를 금지하는 일반 법령임은 일반화시키는 어구들

- 영원한 규례 (עֲלְמָד תִּקְרָן - 후카트 올람)
- 너희 대대로 (דֹּרֹתֵיכֶם - 레도로테이켄)
- 너희 모든 처소에서 (בְּכָל אֶרֶץ כְּנָעַן - 베콜 모쉐보테이켄)

★ 특별한 시간이나 장소의 상황들로 인해 만들어지는 예외란 없다. (해설참조)

피와 기름 섭취 금지(17절)

피 섭취를 금지하는
진술들은 레위기의
다른 부분에서도 발견됨
(7:26-27; 17:10; 19:26)

기름은 어떤 것이든 먹지말라는 금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가 전혀 제공되지 않음 고대 이스라
엘 민족은 짐승의 기력을 기름에 두었고,
힘의 근원으로 봄.

기름은 힘의 부여자인 **여호와와의 독점적인 특권.**
신32:14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맛있는 요리로 기
름을 주셨다는 것을 시사. 기름의 다른 부위들이 바
치는 자나 제사장들에게 먹거리가 되었음을 암시.

하지만 이후에 이러한 후대의 삽입이 여하한 기름이든 먹는 것을 금지함(레7:23-25)

CHAPTER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부위(7:28-36)

가슴(חֶסֶד-하제)

“거제(요제)” - 일반 제사장들에게 속함

오른쪽 넓적다리
(שֶׁ-וְ-קַיִמָּן-쇼크 하야민)

희생제를 집례한 제사장들에게 속한 “봉헌물, 선물”

밀그롬이 정리한 세 가지 유익

- 1) 모든 제사장들이 가슴을 차지 알 수 있기에 제사장들 사이에 음식 공급을 둘러싼 다툼을 가라앉힘.
- 2) 평신도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제사장의 직무순서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일이 없게 함.
- 3) 가슴을 들어 올리는 행위는 화목제 의식에 화려함을 더 해줌.

누구도 제사장이 받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할 수 없음!!

여호와께서 친히 이 규정을 “영원한 규례”로 확립하셨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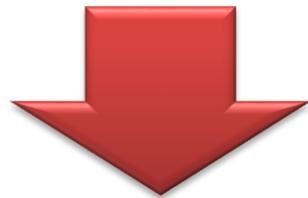
해설

- 하나님께 대한 찬양 가운데 드림.
행운이나 성공, 서원의 완수,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 사랑의 표현
- 하나님의 도움을 기원하기 위해 고난의 시기에 드렸다는 언급
(삿20:26; 21:4; 삼상13:9; 삼하 24:25)
- 제물에서 나온 고기의 많은 양이 축제 식사가 되도록 바치는 자에게 돌아감. 혈족과 여호와 사이의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표현

- 누르체 (Noordzij),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역할
- 타는 기름 냄새는 흠향되는(진정시키는) 향기로 올라가 여호와와의 지속적인 은혜를 간청.
- 헨델 (Hendel), 여호와께 속한 특정한 부위들을 태우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와 바치는 자 사이의 간극을 상징했다는 것을 발견.

헌납 부위들은 번제물 위에서 태워짐.

화목제를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먼저 번제를 바쳤다는 것과 아침 번제 후 드러졌다는 것을 의미함.



신학적 의미

속죄의 효력을 가진 번제가 친교를 강조하던 화목제사에 기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족 혹은 혈족과 마음껏 친교를 나눔, 식사에 동참하는 가운데 참여자들은 자신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빚.
환난 중에 화목제가 드러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재현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



신학적 의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고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

큰 짐승을 가져올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어떤 조건의 완화도 없고,
가난한 자를 위한 예외를 만들 필요도
없었음.

비둘기나 집비둘기와
같은 작은 새들



이유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

제사의 본질적인 의도였던 친교
의 식사를 준비하기에 부적절함.

신약에서의 화목제

화목제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나타나지 않음.

But, 제사를 염두에 둔 언급이 있음

(마9:13; 12:7; 행 21:23b; 롬12:1; 히 13:15-16)



화목제와 초대교회 신자들의 친교 식사 사이에

병행이 만들어 질 수 있음

신약의 믿음의 공동체는 빈번하게 자신들의 집에서 함께 떡을 떼며
고전11:17-34, 친교를 위해 함께 모일 때 성만찬을 기념
화목제의 공동식사와 유사개념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찬양”

구약의 예배자들에게 피가 엄격히 금지됨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은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마심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신자들이 얻는 충만한 축복과 특권들을 향유!

참고문헌

1. 김상기, 『레위기 I』, 대한성서공회 창립 100주년 기념 주석, 2015
2. 하틀리, 존 E, 김경열, 『레위기(WBC성서주석)』, 솔로몬, 2006
3. 변순복, 『히브리어 분해대조성경』, 로고스, 2011